

코로나19 광주 '여행사·펜션·노래방' 직격탄

호남통계청 '코로나 전후 광주 생활업종 소상공인 경제변화상'

2020년 연매출 최대 67.7% 급감...개업도 19.8% ↓ 여행사·노래방 수 10.5%·12.3% ↓ 소비감소 등 여파

코로나19에 광주지역 여행사·펜션·노래방 매출이 급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지역 생활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창업이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광주 생활업종 소상공인 경제변화상'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광주 소상공인 평균 연매출액은 1억2천5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에 비해 0.7% (100만원) 증가했다.

이 중 소매업 소상공인 평균 연매출액은 1억8천1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0.8% 증가했다.

식품점(11.8%), 가전제품(10.4%) 등은 증가한 반면 화장품·방향제(-13.1%), 휴대전화점(-9.6%) 등은 감소했다. 음식점 소상공인 평균 연매출액은 1억1천8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1%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치킨(12.1%), 중식(10.7%) 등은 증가했으나 기타 외국식(-11.7%), 호프·간이주점(-5.4%) 등은 감소했다.

2020년 광주 생활업종 소상공인 사업

체는 총 7만2천147개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천116개(1.6%) 증가했다.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의류(5천326개), 식품점(4천561개), 통신판매(3천606개) 순으로 많았다.

음식업 사업체는 한식(9천190개), 호프·간이주점(3천750개), 카페(3천454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업은 1만514개, 폐업은 9천42개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각각 19.8%, 8.9% 감소했다.

사업체 개업이 1년 전과 비교해 20% 가량 감소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감소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

의 신규 창업이나 업종전환 등이 이전과 비교해 활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폐업사업체 평균 영업기간은 4.3년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0.2년(5.3%) 증가했다.

소상공인 평균 연매출액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여행사·펜션·노래방 등의 순으로 여가생활, 생활서비스, 교육업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여행사 평균 연매출액은 1천800만원으로 전년(5천600만원) 대비 67.7%나 급감했고 펜션도 4천700만원으로 전년 9천200만원에서 48.8% 감소했다. 노래방은 3천만원으로 전년 4천만원에서 24.2% 감

소했다.

특히 여행사 사업체 수는 2019년 373개에서 2020년 334개로 10.5% 감소했고 노래방 사업체 수는 1천344개로 전년(1천533개) 대비 12.3% 줄었다.

광주 5대상권(충장로 일대·상무지구·봉선동 일대·전남대 일대·수완지구) 소상공인 활동사업체는 1만8천227개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80개(-0.4%) 감소했다.

해당 상권의 소상공인 평균 연매출액은 1억2천2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2% (9천200만원) 감소했다.

/양시원기자



추석 과일 선물세트 신세계백화점이 2022년 추석을 맞아 국내산 애플망고와 청망고, 사인머스켓 등으로 구성된 과일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사진은 추석 과일 선물세트를 홍보하는 모델. <신세계백화점 제공>

국산 농축수산물 저렴하게... '추석맞이 할인대전'

aT·농식품부, 내달 12일까지 한도 내 20-30% 할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 국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9월12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20-30%를 할인해주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농축 쿠폰)'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1-2만원이던 할인 한도를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민간 및 공공기관·지자체 운영 온라인몰에서 업체 행사주기별 1인당 2만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전통시장에서는 3만원까지

상향했다.

대상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달걀 등 주요 추석 성수품이며 행사 매장 및 온라인몰 상황에 따라 품목이 변동될 수 있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자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행사 품목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도록 했다. 온라인몰은 사이트에서는 추석 농축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이번 행사에는 알뜰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농축상품권' 판매도 재개된다.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제로페이, 체크카드 앱 등을 통해 농축상품권 구매

시 30% 할인이 적용된다.

농축상품권은 전통시장 내 농축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농축가맹점은 휴대폰 앱 '지맵(Z-MAP)'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전통시장 온라인몰(온누리마켓·온누리전통시장·온누리시장), 놀러와 요 시장(전통시장 상품 주문배달앱), 직거래 장터(바로마켓)에서도 농축 쿠폰을 발행해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사용자 등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aT는 추후 관련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해 김장 행사 등 할인행사를 예산소진 시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LH, 광산구 첫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지원

광산구청·광산경찰서와 협약...주택 제공 등 올해 운영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주 광산구, 광산경찰이 지역 아동 보호 기반 마련에 손을 맞잡았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LH)는 17일 광산구청에서 광산구, 광산경찰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안전한 주택을 제공하고 광산구는 쉼터를 운영하며 광산경찰은 순찰 강화를 담당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보호 조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학대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가 더 많이 필요해졌지만, 설치 기준에 맞는 주택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00㎡ 이상에 방 4개 이상을 갖춰야 하나, 예산 지원은 3억2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LH는 광주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총 4곳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천18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이 중 광산구는 별도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전무해 분리조치 필요 시 타 구의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

LH는 입지조건, 안전요소 등을 검토해 매입임대주택 2개호를 활용한 연결형 쉼터 공간을 광산구에 제공한다.

광산구는 올해 중 쉼터를 신속히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쉼터에는 아동의 공부공간과 심리치료실 등이 조성되며 아동보호자 항시 거주를 통해 아



광산구, LH, 광산경찰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광산구청장 김세관,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재경, 광산경찰서장 김성민이 참석했다. /기수희기자

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광산경찰은 주기적으로 쉼터를 방문, 순찰해 안전을 점검한다.

김재경 LH 광주전남본부장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관세행정 집중"

김용식 42대 광주본부세관장 취임

김용식(51·사진) 제42대 광주본부세관장 취임장이 17일 취임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세관장은 지난 1996년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역관국장을 거쳐 대구본부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세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자유 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지원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세관장은 이어 "수출입 업무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으며 "광범위한 서남해안을 관할하는 세관으로서 관세규격 감시를 강화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이날 오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공식업무에 돌입했다. /박은성기자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 방법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정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구례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위치 :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20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구례

문의 : 062)650-2099